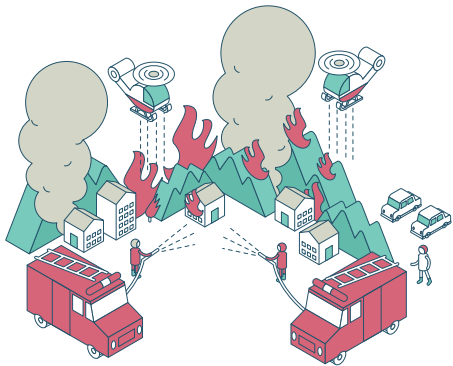


산불가족 찾아 삼십 리

한국일보 

고찬유 기자



2000년 4월 7일 발생한 산불이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아산으로 번져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맞불을 놓으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왜 이 길을 걷는가. 하필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놈의 특종 욕심. 강원도 산길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2000년 4월 7일 동해안 일대에 화마(火魔)가 덮쳤다. 4월 1일부로 한국일보 사회부 경찰팀 영등포 2진(전습)으로 명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전날 과음을 한 탓에 아침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아, 죽었구나.’

“당장 회사로 뛰어 와!” 1진은 냉랭했다. 얼마나 개려고 회사까지 들어오라고 할까 가늠하는 찰나, “휴대폰 충전기 지참!” 충전기로 머리라도 갈길 심산인가,

영문을 알 턱이 없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도착. “삼척으로 간다!”

황당할 겨를도 없이 녹마(綠馬·당시 한국일보 취재차량)에 올랐다. 차 안에서도 쉴 틈이 없다. 강원지역 각 소방서와 경찰서 번호를 수시로 눌러 상황을 점검했다. 속은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신 침을 몇 번이나 꼰작거렸다.

강릉을 지나 동해에 접어들자 불이 보인다. 시키면 연기와 새빨간 불이 도로를 위협한다. 긴장할 틈도 없다. 차는 불길을 뚫고 전진! 전날 산불의 습격으로 폐허가 된 삼척시 궁촌리에 닿았다.

아수라장이다. 사람들은 재로 변한 집 더미에서 건질 게 있을까봐 안절부절 못한다. 그 속에서 취재를 시작한다. 정신을 놓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잡고 나이를 묻고 주소를 묻고 한자 이름까지 물으니(지면에서 한자 이름이 사라지던 날 얼마나 기뻐던지. 한자 이름을 꼭꼭 챙기는 건 기사의 정확성의 한 방안이었으나 중요한 건 양심이 아닌가) 가슴이 참으로 아프더라.

기막힌 사연을 취재수첩에 휘갈기고... 다음 사람을 만나고, 또 다음 사람을 만나고, 르포 취재가 끝나고 1진이 다 행히 변을 피한 집에 부탁해 전화 연결로 기사를 쓴다(보낸다).

불은 살아 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너무 생생하다. 산에서 태어난 불은 여러 덩이의 몸으로 분리한 뒤 마을을 덮쳤다. 마치 폭탄처럼 집에 떨어진다. 폭삭 내려앉은 집 사이에 온전하게 남은 집이 증명한다. 산불은 번져오는 게 아니라 날아 온다는 것을. 다음 날 실제 날아다니는 불덩이를 만났다. 간벌한 나무토막과 솔방울이 불덩이가 돼 강풍에 휘말려 날아다닌다. 그 오싹함이란.

르포 취재가 끝나고 1진 기자의 지시. “넌 남는다. 잘 챙기도록!” 그만이다. 녹마는 애처로이 바라보는 날 비웃듯 사라진다. 헉~ 여분의 옷도 없이 지갑엔 달랑 1만 원 지폐 한 장. 그 돈으로 며칠을 버티란 말인가? 마을을 중심으로 틈틈이 삼척시청 상황실까지 말으라니. 버스비만 왕복 4,000원이다. 카드도 없고 은행 잔고도 없다.

날은 어두워지고, ‘뭘 하나?’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마을 사람들과 잿더미를 헤집는다. 타다 남은 인형이 나오고 시커멓게 그을린 시계가 나오고... 그거라도 조심스럽게 챙기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부박한 삶의 진지성이다.

단독 취재가 시작된다. 함께 물건을 나르고 하룻밤. 다음 날은 삼척시청 당직실에서 쪼그려 잤다. 산불 진행상황,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수시로 점검한다. 끼니는 해결할 길이 없다. 버스비를 제하니 수중에 남은 돈은 2,000원.

검은 구름이 뒤덮은 삼척 하늘 아래, 결단을 내렸다. ‘짜장면을 먹자. 먹고 살자.’ 이걸 어쩌나, 짜장면은 2,500원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궤죄죄한



2000년 산불로 가장 많은 민가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주민이 4월 16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잔해를 정리하면서 쓸 만한 가재도구를 찾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년에게 주인장이 말을 건넨다. “왜 그러슈.” “500원이 모자라서요.” 황당한 듯 본다. “정말이오?”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뒤통수에 닿는 따뜻한 말 한마디. “2,000원어치만 주리다.” 그날 짜장면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름도 친숙한 중화루 짜장.

다시 마을. 이틀 만에 풀이 말이 아니다. 마을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엔 마

을 사람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는다. 손바닥만 한 마을에서 다시 기자라고 각인할 까닭도 없다.

적십자 봉사단이 왔다. 점심 배급.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취재. 봉사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짚는다. “젊은 사람이 안됐네. 힘내야지. 와서 국수 좀 들어봐.” 내 꼬락서니가 그 정도다.

국수를 후루룩 털어 넣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의 은밀한 대화. “또 불났대?” “작년엔 남편이 났다고 하드만.” “그 댁 시어머니도 몇 년 전에 불내가지고 난리가 났대.” 귀가 솔깃하다. 심란한 대화를 정리하면 한 가족이 3년에 걸쳐 산불 사고의 핵심이었다는 것.

‘특종이다!’ 아찔하다. 1진에게 전화 보고. “그래? 그럼 가서 취재해봐.” 부랴 부랴 현장으로 달려간다. 할머니 왈 “논길 따라가면 돼. 금방이여.”

가도 가도 마을은 안 보인다. 차도 없다. 목이 탄다. ‘진짜 그럴까?’ 의심이 든다. 허나 어쩌랴. 이미 옆질러진 물. 20분이면 간다던 양지마을은 1시간이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 집을 찾았다.

아무도 없다. “이런 제기랄!” 마을 사람을 붙잡고 취재에 들어간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응 응 맞아. 불났어.” “언제요? 어디서요? 누가요?” 답답한 나는 기사의 생명인 육하원칙을 모조리 무시하고 “불났다”만 강조하는 마을 사람들과 몇 시간을 씨름한다.

설상가상. 휴대폰도 안 터진다. 전국 어디서든 터진다면 애니콜 휴대폰은 첩첩산중에선 ‘아니콜’이다. “젠장할.” 다행히 젊은 아낙을 만나 대충 취재의 열개를 만든다.

확인 작업. 경찰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휴대폰은 먹통이고 집집마다 수소문. 젖동냥하듯 전화를 구걸한다. 삼척 산불의 첫 발화자로 구속된 안 씨는 경찰 조사 중, 마을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한다. 맞다.

다시 1진에게 보고. 취재 내용을 주르르 불러준다. 남의 집 전화통 붙들고 ‘세월아 세월아’ 하는 피죄죄한 늙을 보는 눈이 심상치 않다. “근데 기자 맞긴 맞아요?” 헉~~~

그렇게 종일 취재한 원고지 십수 매



2000년 4월 1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서 경찰들이 잔해를 치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분량의 기사는 원고지 1.5매짜리 ‘표주박’으로 압축돼 1진 기자 바이라인을 달고 나갔다. 견습기자는 기자로 쳐주지 않는 터라. 그날 전화가 안 된다고 무지하게 깨진 걸 생각하면 아득하다. 아래가 문제의 기사.

표주박/수차례 방화 이력 ‘산불 가족?’

○...지난 7일 강원 삼척지역 첫 산불의 발화자로 구속된 안모(42·여·삼척시 근덕면) 씨 가족은 2년 전부터 여러 차례 산불 ‘사고’를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의 남편 이모(46) 씨는 지난해 4월 거름을 만들기 위해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다 불이 잡목으로 옮겨붙는 바람에 소방차들이 출동했다.

이 씨의 어머니도 98년 3월께 아들의 교회 뒤 논두렁을 태우다 초목으로 불이 번져 주민들이 가까스로 불길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바람이 심한 날 불을 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뻔히 알면서도 매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0.4.14.

3년 만에 산불 현장을 다시 찾았다. 마을 할머니 몇몇은 날 기억한다. “또 왔네. 어데 불 난 거 아니래요?” 그게 첫마디다.

불탄 자리에 말끔히 세워진 양옥이 보기 좋지만은 않았다. 대대로 살아온 정겹고 허름한 마을 모습을 망가뜨린 것 같아서. 번듯한 집이 고스란히 노인들의 빛이 돼서. 더구나 1년 전 수해까지 겹쳐 시름이 배가 된 터라 더더욱.

다음은 당시 <전국패트럴> ‘3년 지난 산불 현장’ 편. 그 마을 부분만 발췌한다.

인정 없는 화마(火魔)가 동해안 일대를 할퀴고 간 지 3년. 산은 울창했던 모습 대

신 등성등성 심은 싸리비 같은 묘목으로 몸뚱이를 가리고 있다. 검게 탄 밑동과 솥기둥이 된 나무 주검은 아직 재앙의 땅을 지키고 있다.

어디 산뿐이라. 덮을 이불 하나 건지지 못하고 몸뚱이만 달랑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의 마음 역시 상처는 남았다. 주민들은 이웃이 산불과 화병으로 세상을 등진 악몽의 자리에 다시 집을 짓고 삶의 실타래를 이어가고 있다.

황량한 산이 진달래 개나리를 피워 봄 소식을 전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사이 주민들은 아픔을 간직한 채 골짜기마다 버티고 서서 화마의 기습에 대비하고 있었다.

“불 이야기 꺼내지도 마래요.”

3년 만에 찾은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30여 채의 가옥이 불에 타고 1명이 숨져 가장 피해가 컸던 마을이다. 뉘를 놓아버려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던 참혹한 풍경은 먼 기억 속의 일일 뿐, 마을은 변해 있었다. 7번 국도 변에 자리 잡은 건 여전히지만 현대식 양옥이 길게 늘어섰다. 튼튼이긴 쓰러질 듯 낡고 초라한 슬레이트 가옥은 요행히 산불 피해를 면한 집이다.

번듯하게 차려놓은 구멍가게에 들어섰다. 3년이나 지났건만 가게 주인은 기사를 알아본다. “어데 불난 거 아니래요, 뭐 하러 여길 또 와요.” 화재 당시 찾아왔던 기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수상했을까. 토박이 김진녀(68) 할머니가 안절부절못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약통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듬해 영감은 화병으로 보내고 나도 심장약으로 버텨요.”

“불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던 할머니가 한참이나 가슴을 쓸어내리더니 말을 이었다. “내 평생 처음이래요. 까마득하고 꿈 같아요. 도깨비불 같은 불덩이가 저가 불고 여가 불고 우리 가게도 홀랑 다 탔어요. 대목 준비한다고 물건도 많이 쟁여놓았는데...” 할머니의 산불 기억은 끊어진 조각처럼 아귀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날짜와 들고난 사람들의 얼굴만은 잊지 않는다고 했다. “그 난리통에 손가락 하나 찡길 겨를도 없었는데 많이들 도와줬지. 그 공 다 못 갚지.”

마실 나온 박본이(67) 할머니도 기사를 알아봤다. 거동을 못하던 할아버지를 구출했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던 박 할머니가 “겁나 겁나, 그만해” 하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맘때만 되면 연기만 보여도

가슴이 떨린다니까. 헬기만 지나가도 흠칫 놀라 밖으로 나오는데 월, 쓰레기도 허투루 안 태워. 그랬다간 이웃끼리 대거리하고 바로 신고 들어간다니까.”

“집을 새로 지어 마을이 깔끔하다”고 슬쩍 묻자 “이게 다 빚이래요” 하고 되받는다. “70%밖에 못 받았어. 작년에 놀러온 대학생들이 부자 마을이라고 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든지...” 그뿐이 아니라고 했다. “사람 팔로 둘러도 어렵었던 소나무들이 다 타는 바람에 송이 캐는 일도 끝장났어.” 해녀 현선(68) 할머니는 “바다 밑이 온통 허연 재로 뒤덮여 전복도 없고 미역도 안 맏힌다”고 했다. 도로 너머 바닷가 마을 해녀들은 사방공사 품팔이를 하며 바다일 대신 산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략)

삼척시 화재의 발화지였던 근덕면 양지 마을로 가는 길목에도 빨간 조끼를 걸친 백발의 촌로들이 지나가는 차를 유심히 살핀다. 청년들은 모두 제 살길 찾아 떠난 터라 대부분 노인들이 산불 감시를 맡고 있지만 담배라도 빼 물라치면 언제 왔는지 “어디서 오셨소, 거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2003년 강원도 동해안 고속도로 주변 산림이 아직 2000년 발생한 산불 상처로 얼룩져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봄꽃이 피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며 주의를 줬다.

(하략)

강릉 삼척=고찬유기자 jutdae@hk.co.kr 2003.4.9

기사에 녹이진 못했으나 하나 더 있다. 중화루 짜장과도 3년 만에 조우했다. 주인장이 달랐다. 그래서 그런가, 짜장 맛도 그날의 황홀한 풍미가 아니었다. 하긴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굳이

그 먼 거리를 걸어가지 않으리라. 경찰서로 전화 한 통 걸어서 해결하고 말았을 터. 아니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뒤지든지. 세월은 참 빠르고 게으름은 더 깊다. 📍